

科學圖書로 韓國에 꿈을 심은

孫 永 壽 電波科學社 社長



「科學을 당신의 포키트에!」

어렵고 딱딱하며 엄청나게만 느껴져 우리生活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듯한 科學을 보다 쉽게 다루어보려는 執念때문에 과학 [저널리즘]을 시작했다는 電波科學社의 孫永壽사장은 出版業界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意志의 人物이다.

“내힘으로 씨를 뿌려보겠다는 오기와 鬪志로 科學誌를 이끌어 왔죠. 거들 것만을 먼저 생각하면 되나요? 씨를 뿌려두면 언젠가는 자라서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韓國科學史上 황무지時代에 속하는 1956년에 電波科學社를 發足하고 3년後인 1959년 4월, 電波知識의 보급과 기술 향상을 위하여 月刊「電波科學」(現 電子科學)을 創刊하였다.

日常生活 속에 깊숙히 침투하여 누구와도 친근한 科學器機가 「라디오」라는 데에 착안하여 電波를 素材로 한 科學雜誌를 내게 됐다며 손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어린이는 물론 선생님이 가르칠 책도 없던 형편이었죠 그때도 3000 部는 팔릴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겨우 1000 部밖에 안 팔리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屈하지 않고 「科學과 生活」 「科學新聞」등을 계속 刊行하여 科學을 生活化하겠다는 굳은 意志를 펼쳐 나갔는데 孫社長은 科學誌로는 最長의 壽名을 지닌 「電子科學」(1969년부터 改稱된 옛 電波科學)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단다.

好奇心에 가득찬 幼兒期부터 科學을 向한 마음은 빠르게 되지만 資料의 빈곤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어린 싹들을 안타까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科學風土의 造成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금년 大統領 年頭 記者會見에서 제창된 全國民의 科學化 運動이야말로 이와 같은 계기를 만들어준 획기적인 時點이지요. 科學者와 技術者를 尊重할 줄 알고 科學이 곧 國力입을은 國民이 절감하게 될 날이 머지않은것 같습니다”하면서 기뻐 하신다.

實驗機構과 시청각 教育施設이 부족한 國內實情에 비추어 불

매 印刷媒體를 통한 知識보급을 主張하는 손사장은.

“유리공장을 例로 들어볼까요? 그 많은 선전비의 1할만을 科學風土造成을 위한 事業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제조 과정등을 책자로 만들어 각급 학교에 무상으로 보급하면 우리에게 대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어느정도는 풀어줄 수 있지요. 會社 선전도 되구 말입니다.”

어렸을 때의 科學教育을 特別 強調하시는 손사장은 “外國에는 어린이를 爲한 만화 科學誌, 청소년이 읽는 科學雜誌, 과학신문 등 讀者를 대상으로 細分, 專門化되어 있지요 화려한 인쇄와 포장의 童話集도 좋지만 自然의 신비와 우주를 向한 꿈을 키워 줄 科學全集의 出刊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한다.

科學知識의 大衆化, 科學의 生活化로써 科學技術의 진흥을 꾀하려는 의도 아래 電波科學社는 포키트版「現代科學新書」를 계획 出版하여 현재 제 7권을 배포중에 있는데 우선은 學生層을 中心으로 한 基礎科學을 담고 있다. 科學은 누적의 知識이라고 말하는 손사장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있는 한은 지속할 작정입니다. 그러다보면 뜻있는 분이 또 나오겠죠 科學風土造成을 爲해 씨를 뿌린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금년도 과학의 날에 과학기술지식보급 有功者로 科學技術賞을 수여받은 손사장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입니다. 제가 한 일에 대해 관심을 쏟아주셨다니 얼마나 기쁘고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以前에도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일이 있지만 韓國唯一의 科學技術聯合體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賞을 수여받게 제일 흐뭇하다면서 손사장은 “앞으로 더 길해 보라는 격려가 아니겠느냐”고 사뭇 겸손해하신다.

열 사람 중 단 한 사람에게가라도 이득을 줄 수만 있다면 그 한사람을 위해 서슴지 않고 씨를 뿌리겠다는 孫社長의 말씀이 電波科學社를 나서는 記者의 詞句를 따갈게 스친다.